

일본고전와카 속에 나타난 배의 이미지

南 二 淑*

(e-mail : ysnam@kunsan.ac.kr)

目 次

1. 첫머리에
 - 2-1. 하늘과 지상을 오가는 배
 - 2-2. 자유와 여유로움의 상징
 - 2-3. 불안정, 덧없음의 상징
 - 2-4. 불도수행과 구도공간으로서의 이미지
 3. 끝머리에
-

1. 첫머리에

우리나라의 사찰 법당에 가 보면 대부분의 절 집 전면 중앙에 용두(龍頭)와 용미(龍尾)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용두와 용미는 극락세계를 향해 가는 반야용선을 상징한다고 한다.¹⁾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용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바세계에서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가는 상상의 배를 일컫는다.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탈것이 필요하다. 『金剛經』에서는 피안으로 향하는 탈것을 뗏목에 비유하고 있다. 법당은 불자들이 부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의 선실과 같은 곳이며 그 배가 향하는 곳은 바로 피안의 극락정토이다.²⁾

이런 사실을 접하고서 일본의 고대 와카를 읽으면 어딘지 상통하는 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万葉集』 · 『日本書紀』 · 『古今集』에는 배가 하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신영훈(1989) 『사원 건축』 대원사 86p 참조

2) 허균 (2000)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3p

늘을 날거나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와카가 다수 채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法の舟」「濟度の舟」와 같은 표현을 담고 있는 노래를 접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万葉集』 및 그 이후 편찬된 勅撰集인 八代集, 나아가 동시대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고대 와카에 나타난 배의 이미지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적재수단이란 의미로 읊어진 「배」에 관한 노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1 하늘과 지상을 오가는 배

『日本書紀』卷三의 神武天皇(히코호호데미노尊)의 東征神話 본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³⁾

監土老翁曰 東有美地 青山西周 其中亦有乘天磐船 而飛降者

내용인즉 ‘監土老翁이 말하기를 동방에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청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에 아마노 이와후네(天磐船)란 배를 타고 내려온 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아름다운 야마토의 나라에 아마노 이와후네(天磐船)란 배를 타고 하늘에서 강림한 니기하야히노 미코토(饒速日命)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훌륭한 천신이 강림한 야마토야말로 축복 받은 위대한 자의 통치를 받기에 어울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아마노 이와후네(天磐船)」를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 부분인데, 「磐船」를 소재로 한 와카는 『万葉集』에도 두 수 채록되어 있다.⁴⁾

万葉 292 ひさかたの 天のさくめ(探女)が 磐船の 泊てし高津は あせにけるかも

万葉 4254 あきづ島 大和の国を 雨雲に 磐船浮べ 舳に 舳に ま懼し貫き い漕ぎつつ
国見しせて 降りまし 払ひ平らげ 千代重ね いや 継ぎ継ぎに 知らし来る
天の日の継ぎと…

먼저 292의 노래 내용을 살펴보자. 노래 내용은 ‘옛날 하늘의 여신이 내려올 때 닳던 이와후네가 머물렀던 다카쓰는 알아졌구나’이다. 다카쓰(高津)는

3) 성은구(1987) 『日本書紀』 정음사 108p

4) 이하 『万葉集』의 노래는 1994년 발행된 일본고전문학전집 小学館의 책으로부터 인용함

지금의 大阪府 中央区 高津 一丁目로 당시에는 닌토쿠(仁德)천황의 궁으로 추측되는 곳으로 해안선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⁵⁾ 주석서를 참고하면 가인이 노래를 부른 시점에도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는 거의 같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화를 간직한 장소에 모처럼 찾아간 감회를 담아 이렇게 노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늘에 사는 여신이 타고 내려온 이와후네(磐船)란 돌과 같은 튼튼한 재질로 만든 배로 천손이 이 세상에 강림할 때 사용되는 교통수단이었던다는 사실이다.

4254는 오토모 야카모치의 장가(長歌)의 일부인데, 현대어로 옮겨보면 ‘아키쓰 시마인 야마토의 구름 속에 반석으로 만든 튼튼한 배를 띄워 뱃머리나 배의 후미에 여러 개의 노를 달아 힘차게 저어 나라들을 굽어보고 강림하셔서 적을 물리치고 천대를 계속해 다스려온 천통의 황자로서.....’ 뜻이 된다.

이 노래에서도 이와후네(磐船)는 『日本書紀』와 292의 노래에서와 같이 천손이 구름 속에서 나라를 살피거나 이 세상에 강림할 때 사용되는 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日本書紀』나 『万葉集』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新古今集』의 노래 1865~1867에 수록된 노래를 보면 엔기(延喜) 6년인 906년, 다이고(醍醐)천황 시대에 당대의 가인들은 日本紀竟宴을 개최해 이를 제재로 삼아 여러 수의 와카를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그 중 다음 노래는 神代の 세계에서 人皇이 비로소 출현되었다는 감동을 전하고 있다.

新古今 1867 飛びかける天の磐舟 訪ねてぞ秋津洲(あきつしま)には宮始めける
(천상에서 날아 내려왔다고 하는 이와후네를 찾아 야마토 나라에
도움을 옮긴 것이다.)

이처럼 하늘을 날아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배에 관한 노래는 이외에도 칠월 칠석날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十卷에 하늘을 바다에 비유해 은하수를 지나가는 모습으로 다수 수록되어 있다.

2000 天の川 安の渡りに 舟浮けて 秋立ち待つと 妹に 告げこそ
은하수 야스노 강변에 배 띄우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님에게 전해다오

2015 我が背子に うら恋ひをれば 天の川 夜舟漕ぐなる 梶の音聞こゆ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자니 은하수에서 노 젓는 밤배의 소리가 들린다

5) 小島憲之 外 二人 校注(1994) 『万葉集』 小学館 189p

6) 田中裕·赤瀬信吾 校注(1992) 『新古今和歌集』 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544p

2042 しばしばも 相見ぬ君を 天の川 舟出はやせよ 夜の更けぬ間に

자주 만나지 못하는 당신이니까 은하수에 빨리 배를 띄우세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古今集』 이후 등장한 가집 속의 하늘을 나는 배에 관한 와카는 어떠할까.

古今 863 わが上に露ぞをくなる天の河門渡る舟の櫂のしづくか

내 몸 위에 이슬이 내린 것 같다. 은하수 건너는 길을 견우성이 건너는 것일까.

雑歌의 서두 부분을 장식하는 노래로 연이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칠석날의 연회를 즐기는 분위기의 노래가 배열되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노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면 뭔가 흥겨운 일이 생겨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구에서는 <이슬>을 상상의 세계 속에서 은하수를 건너가는 배에서 노저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는데, 『万葉集』의 「この夕べ降りくる雨は彦星のはや漕ぐ舟の櫂の散りかも」⁷⁾란 노래를 염두에 두고 부른 노래로 추측된다.

『後撰集』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다.

後撰 228 水まさり 浅き瀬しらずなりぬとも 天の門渡る舟もなしやは

물이 불어 건너야 할 얕은 곳 몰라도 그렇다고 은하수 건너는 배까지 없을 리는 없을 텐데

248 たなばたの帰る朝の天河舟もかよはぬ浪もたたなん

직녀가 돌아가는 8일 아침의 은하수에는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파도가 일었으면

321 秋の月の上に漕ぐ船なれば桂の枝に竿さはらん

가을 연못의 달 위를 저어 가는 배이기에 달 속에 있다고 하는 계수나무에 노가 닿아 짓기 힘든 것일까

228의 노래도 칠석날의 전설을 바탕으로 상상의 세계를 끌어들이 노래하고 있다. 고토바 가키에 따르면 이 노래는 칠석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비가 많이 와서 못 오겠다고 변명한 것에 답하는 노래이다. 작자 미상의 노래인데, 古今集의 기노 토모노리(紀友則)의 노래 「177 天の河浅瀬白浪たどりつつ渡り果て

7) 한국어 역은 「오늘 저녁 내리는 비는 견우성이 빠르게 짓는 노의 물방울이겠지」 임

ねば明けぞしにける」⁸⁾처럼 얇은 여울을 도보로 건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174 ひさかたの天の河原の渡守君渡るなば楫かくしてよ」⁹⁾와 같이 배로 건너는 방법도 있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못 오는가 하며 빈정거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月の舟」란 표현과 함께 하늘을 나는 배를 읊고 있는 노래도 있다.

万葉 1295 春日なる 三笠の山に 月の舟出づをの 飲む酒杯に 影見えつつ
가스가의 미카사 산에 달 배가 떠 있구나. 풍류객이 마시는 술잔에 그림자가 비치는 걸 보니.

万葉 2223 天の海に 月の舟浮け 桂槳 かけて見ゆ 月人をとこ
하늘 바다에 달 배를 띄우고 계수나무 노를 달아 저어가는구나. 달 사나이가.

拾遺 488 空の海に 雲の浪立ち 月の舟 星の林に こぎかくるみゆ
하늘 바다에 구름 파도가 일고 月舟가 별 숲으로 노 저어 숨어 들어가는 게 보이는구나

拾遺 1160 はるばると雲居をさしてゆく 舟の行く末とをく思ほゆるかな
멀리 구름 저편을 향해 저어 가는 배처럼 그대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구나.

万葉 1295는 술잔 속에 떠서 흔들리는 달의 모습을 마치 배와 같다고 보면서 「달 배(月の舟)」라고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다. 2223은 하늘을 바다에 비유하고 이를 배경으로 달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달 사나이가 노를 저어 가는 것 같다고 읊고 있다.

488의 노래는 구름을 파도로, 달을 배로, 별을 숲으로 비유해 노래하고 있는데, 万葉1068에도 실려 있는 柿本人麿의 노래이다. 『懷風藻』에 文武天皇의 노래로 「月舟移霧渚」란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한시문적 취향을 모방해 창작한 와카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60의 노래는 병풍가로 되어 있는데 『伊勢集』를 참고로 하면 913년 나이시노 가미 후지와라노 미츠코의 40세 기념일에 축하의 의미를 담아 부른 노래이다. 「망망대해를 저어 가는 배처럼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장수를 비는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이다.

이상의 노래를 참고로 보면 「天の門渡る舟」「天河舟」「月の上に漕ぐ船」

8) 한국어 역은 「은하수 얇은 여울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파도 헤치며 찾다 보면 날이 밝아 버리겠지」임

9) 한국어 역은 「은하수에서 손님을 태우는 뱃사공이여, 그 분이 저 편으로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노를 감추어다오」임

「月の舟」「雲居をさしてゆく舟」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대 시인이나 가인들은 하늘을 바다에 비유했음을 알 수 있다.

바닷가에 나가 어둠이 뒤덮인 바다를 보면 바다와 하늘이 결코 따로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가 하늘이고 하늘이 바다인 듯 하다. 별들이 모두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을 밝힌 어선들이 모두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풍경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증폭시켰는지 아니면 하늘이 바다처럼 생각되어 부풀려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현대에 이르러 『하늘을 나는 배』와 같은 동화가 창작되는 것을 보면 옛 시인들의 상상력이 현대인들의 그것에 그다지 뒤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배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인 합성어가 많다는 것이다.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天鳥船」「鳥之石楠船」「天鳩船」「鴨といふ舟」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万葉集』과 『古今集』에도 다음과 같은 노래가 실려 있다.

万葉 3866 沖つ島 鴨といふ舟の帰り来ば やらの防守 早く告げこそ
조난했다고 하는 카모란 이름의 배가 돌아오면 야라의 사키모리여,
바로 알려다오.

万葉 3867 沖つ島 鴨といふ舟は やらの防守 廻みて 漕ぎ来と聞こえ来ぬかも
조난했다고 하는 카모란 이름의 배가 돌아왔다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려나

이처럼 새 이름이 배이름에 붙어 합성어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고대 가요집에서 새가 저승까지 자유로이 왕래한다는 내용의 노래가 상당수 있다. 다음 노래를 보자.

古今855 亡き人の宿に通はばほとどぎす かけて音にのみ鳴くと告げなむ
저 세상의 망자가 있는 곳에 다니는 새라면 내가 그이를 생각하며
시종 울고 있다고 알려다오

拾遺1307 死出の山越えて来つらむほとどぎす恋しき人のうへ語らなむ
죽은 사람이 넘는다는 산을 넘어서 다녀왔는가. 소쩍새여, 사랑스런
그이의 일을 자세히 알려다오

齋宮 35 白露の消えにしほどの秋待つと常世の雁も鳴きて訪ひたり
넒이 숨을 거둔 가을을 기다리며 수심에 잠겨 있자니 그 기분을 알
아서인지 저 세상의 기러기도 울면서 찾아왔구나.(齋宮女御集)

위의 노래를 참고하면 「ほとどぎす」나 「雁」 모두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

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새로 인식하고 그 새들에게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망자를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지」 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노래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이 어떠하며, 그 길을 함께 하는 친구라 다정하게 여겨진다’ 며 저승길 길잡이로서의 소쩍새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있다.

金葉 645 草の葉に門出はしたりほととぎす死出の山路もかくや露けき

풀잎 이슬에 젖으며 저 세상으로 떠나려는 이 내 신세. 소쩍새여. 망자가 자주 넘어 다닌다는 산길도 이렇게 젖어있더냐.

千載 582 常よりも睦まじきかなほととぎす死出の山路をたどる友と思ふので

소쩍새여. 오늘은 한층 더 다정하게 여겨지는구나. 함께 저승길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니.

이 같은 사실은 日本書紀의 神代下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천신인 아메노와카히코(天稚彦)가 죽자 그의 부친신인 아마쓰구니(天國玉神)가 하야치(疾風)를 파견하여 그 시체를 하늘로 가져오게 한다. 그리하여 여러 종류의 새들이 등장하여 각기 맡겨진 일을 수행해 장례식을 치른다. 기러기(川雁)는 망자에게 먹을 것을 바치고 상가를 빗자루로 쓰는 일을, 참새(雀)는 장례식에 필요한 곡식을 찢는 일을, 뺨새(鷓鴣)는 곡(哭)을 담당하고 솔개(鵟)는 망자의 장의 준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식이다.¹⁰⁾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새가 등장해 장례식에서 활약하는 것은 인간의 혼이 사후에 새가 된다는 신앙이 당시에 존재했으며, 야요이 시대부터 고분시대에 걸쳐 곡령이나 죽은 혼령의 운반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충분히 수궁이 가는 얘기이다. 우리의 신화나 벽화에 세 발 달린 까마귀, 즉 삼족오가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天鳥船」 「鳥之石楠船」 「天鳩船」와 같은 합성어는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새의 모습이 과도 넘실대는 異界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배와 유사해 서로 조합된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를 배에 비유하고 배를 새에 비유하는 경우는 다음 와카에서도 엿볼 수 있다.

古今 212 秋風に声をほにあげて来る舟は天の門渡る雁にぞありける

10) 성은구(19870 『日本書紀』 정음사 65p

「가을바람 속 소리 높여 다가오는 배는 하늘 문턱을 넘어서 온 기러기 때로구나」라는 뜻을 가진 이 노래는 주석서를 참고하면 백거이가 「河亭晴望」이라는 시에서 「秋雁櫓声来」라고 읊은 漢詩의 표현방법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처럼 백거이의 시 세계가 일본 와카에 어색함 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칠월칠석의 신화적인 이미지가 이미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밖에 우리가 물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일엽편주」¹²⁾라고 비유해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카에서도 「나뭇잎(木の葉)」에 비유되는 노래를 찾아볼 수 있다.

千載 362 清見潟関にとまらで行く舟は嵐の誘ふ木の葉なりけり

기요미가타의 관문에서도 멈추지 않고 가는 배로 보인 것은 폭풍우에 흩어져 떨어지는 나뭇잎이군요

『土佐日記』에도 1월21일의 기록을 보면 「みな人々の舟 出づ。これをみれば春の海に秋の木ノ葉しも 散れるようにぞありける」¹³⁾라고 쓰여 있어 당시 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 자유와 여유로움의 상징

일본 와카 속에서 배를 소재로 한 이미지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浮き舟」이다. 그런데 이 「浮き舟」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자유의 상징으로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로 읊어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古今 920 水の上に浮かべる舟の君ならば、ここぞ泊まりといはましものを

당신이 물위에 떠 있는 배라면 여기가 정박해야 할 항구임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만....

11) 小島憲之・新井栄蔵 校注(1989) 『古今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78p

12) 우리 표현에서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일엽편주와 같은 형국이라’ ‘과도에 휩쓸린 일엽편주와 같이’ ‘일엽편주에 몸을 실어 숨은 풍경을 찾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13) 菊地靖彦 外 2人 校注・訳(1995) 『土佐日記 蜻蛉日記』 35p

後撰 670 白浪の寄する磯間を漕ぐ舟の楫とりあへぬ恋もするかな

흰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는 암석 해변을 떠가는 배가 제대로 노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구나.

古今 920의 노래는 정원의 연못에 새로 완성된 배를 떠올리는 진수식을 방
문한 우다 법황을 붙잡기 위해 집 주인을 대신해 당시 여류가인으로 이름을
نال린 이세(伊勢)란 가인이 부른 노래이다. 법황을 배에, 신분이 낮은 자신을
항구에 비유해 그를 사모해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때 밧줄에 묶여있지 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 상징으로, 퇴위한 우다 천황의 유유자적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新古今集에도 다음과 같은 와카들이 수록되어 있다.

151 唐国の舟を浮べて遊ぶてふ今日ぞわがせこ花かずらせな

당나라 사람들이 배를 띄우고 논다고 하는 오늘이다. 님이여, 꽃가발을 쓰
고 즐기자.

916 舟ながら今宵ばかりは旅寝せん 敷き津の波に夢は覚むとも

배에 탄 채로 오늘밤만큼은 지내보도록 하자. 시키쓰 포구에 밀려드는 파
도소리에 꿈에서 깨어날지라도

151의 노래는 중국의 시인들을 모방해 曲水宴을 베풀 때에 흘러보내는 찻
잔을 배에 비유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916의 노래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음미하면 일상의 단조로움을 피해 오늘만큼은 배 위에서 자유로운
기분으로 색다른 여유를 즐기자는 바람을 읊고 있다.

『莊子』의 「列禦寇」편에 보면 列子和 伯昏督人の 가르침에 따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자보다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파
하며 다음과 같이 <배>를 사용해 비유한 대목이 있다.

巧者 勞而 知者憂. 無能者 無所求飽食而遨遊, 汎若不繫之舟, 虛而遨遊者也¹⁴⁾

재능이 있는 자는 고생을 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마음이 괴롭지만 능력이 없
는 자는 맘껏 먹고 만족하면서 자유로이 놀고 매여 있지 않은 배가 행방도
모르고 떠다니는 것처럼 무심히 즐긴다

「汎若不繫之舟」란 표현은 일본어로 바꾸면 ‘繫がれない小舟が 波にまか
せ水に浮かび漂うように’ 인데, 일본 와카에서도 자주 접하는 표현으로 위의

14) 赤塚忠(1972) 『莊子』下 集英社 667p

예로 든 점과 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된다. 백거이의 「贈五丹詩」에도 ‘宦途似風水, 君心如虛舟 (은퇴 후 고생 많은 관직의 수고로움에서 해방되어 무심한 배처럼 자유로이 구가하는 배처럼’이란 시구가 있는데 「繫がぬ舟 虚しき舟」란 당시 가인들이 바랐던 삶의 가장 이상적인 자유로운 경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의 조선시대의 시조문학을 대표하는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호사시가」는 좌의정을 지낸 맹사성(孟思誠)이 만년에 지은 시로 고향에 돌아가 강변에서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한 기분으로 지내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사시가(四時歌) 중의 가장 대작인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도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구가하고자 하는 동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⁵⁾ 그밖에도 배를 소재로 삼아 어부의 생활을 읊은 시가들은 대체로 직업적 어부가 아니고 중국 문학사에 등장하는 굴원이나 강태공 등의 은사를 흠모하고 있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은둔적 고답적인 생활을 동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3 불안정, 덧없음의 상징

배가 상징하는 의미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늘 기쁨과 자유로 가득 찬 긍정적인 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읊어지는 경우도 많다.

万葉 351 世の中を何にたとへむあさほらけ 漕ぎ出してゆく舟の跡の白波
 後撰 651 鳴門よりさしわたされし舟よりも我ぞよるべなき心地せし
 779 ころから浮きたる舟に乗り初めて ひと日も波に濡れぬ日ぞなき
 959 身のならんことを知らず漕ぐ舟は浪の心もつつまざりけり

万葉 351의 노래는 후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는지 古今六帖 1821과 拾遺1327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세상을 비유한다면 뒤편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새벽녘 노 저어나간 배 지나간 곳의 하얀 파도’라고 읊고 있는 이 노래는 파도만큼이나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색을 담고 있다.

後撰 651의 노래는 ‘나루토에서 밀려온 거센 조류에 휘말린 배 이상으로

15) 秦東赫(1990) 『古時調文学論』 형실출판사 91p

나야말로 의지할 곳 없는 기분이다’ 라며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를 호소하고 있다. 779의 노래는 오노노 코마치(小野小町)의 노래로 「浮き」에 「憂き」의 의미를 중첩시켜 ‘스스로 자초해 고통스런 배를 타고 단 하루도 파도에 젖어 지내지 않는 날이 없구려’ 라며 읊고 있다. 사랑하는 남자의 태도가 서서히 냉담해져 가는 것을 원망해 부른 노래이다. 959의 노래도 ‘내 신세가 어찌 될지 모르고 저어 가는 배는 파도가 어찌 생각할지 그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 며 불안한 자기 자신을 배에 비유해 노래하고 있다.

『新古今集』에서도 부초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유랑해야 하는 유녀의 생을 묘사하고 있는 노래를 찾아볼 수 있다.

新古今 1704 さすらふる身は定めたるかたもなし浮きたる舟の波にまかせて
 방황하는 내 신세는 일정하게 사는 곳도 없다 떠다니는 배가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파도에 떠밀려 뒹뒹 떠다니는 배의 모습에 방황하는 자신의 신세를 중첩시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는 불안정한 사랑의 비유로서도 자주 읊어지고 있다.

後撰 670 白浪の寄する磯間を漕ぐ舟の楫とりあへぬ恋もするかな
 흰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는 암석 해변을 떠가는 배가 제대로 노를
 젓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구나.

後撰 768 玉津島深き入江を漕ぐ舟のうきたる恋も我はするかな
 다마쓰 섬의 깊은 만을 저어 떠가는 배처럼 난 괴롭고 불안정한 사
 랑을 하는구나

헤이안 중기에 편찬된 『和漢朗詠集』의 「無常」卷에는 다음과 같은 와카가 실려 있다. 16)

朗詠 789 身を觀ずれば岸の額に根を離れたる草命を論ずれば江の頭に繋がざる舟

羅維의 漢詩구절이었던 「觀身岸額離根草, 論命江頭不繫舟」라는 시구를 와카 형태로 번안한 시로 시의 의미는 「이 몸의 신세를 말하자면 뿌리가 드러난 강기슭의 풀과 같고, 목숨을 논하자면 강가에 매어두지 않은 배와 같다」로,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함축시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구가

16) 菅野礼行 校注·訳(1999) 『和漢朗詠集』小学館 410p

동시대에 편찬된 설화집 『三宝絵詞』에서는 인생무상을 설파하기 위한 서문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和泉式部集』에서는 이 와카의 음을 두운(頭韻)으로 취해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43수의 연작시를 탄생시키고 있다. 그만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유였기 때문일 것이다.

『源氏物語』에도 이런 의미를 담은 우키후네의 용례가 있다.

浮舟는 『源氏物語』 제3부 히로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출생부터 황족인 친아버지에게 외면당한 그녀는 성장해서는 나카노 기미와 가오루의 연모를 회피하는 대리역할을 맡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났다. 한편으로 나카노 기미의 남편이며 가오루와 연적 관계에 있는 호색한인 니오우노 미야는 가오루를 가장 하고 그녀를 유인해 우지강 기슭 반대편으로 데려가 이틀 밤을 보내고 작은 섬 상록수에 비유해 다음 와카를 읊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한다.¹⁷⁾

年ふともかはらんものか橘の小島のさきに契る心は

세월이 지나도 변할 손가. 타치바나 섬의 곳에서 그대와 맺은 이 마음. 작은 섬 상록수의 초록이 천년을 변치 않는 것처럼 내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이러한 미야의 노래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답가로 응수한다.

橘の小島の色は変はらじをこの浮舟ぞ行方しられぬ

작은 섬 안의 상록수가 가득해 그 색깔이 늘 푸른 것처럼 미야의 기분은 변하지 않겠지만 떠다니는 배와 같은 저는 어디를 향해 떠가는지 알 수가 없군요.

니오우노 미야의 사랑의 맹세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과연 미야에게 의지해도 되는지 우려한다. 미야를 의지하고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임을 알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녀는 두 귀공자에게 구애를 받아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고뇌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宇治강에 몸을 던지고 만다.

모노가타리 속에서 「떠다니는 배(浮舟)」는 이처럼 실제로는 안주할 곳이 없는 불안정한 그녀의 입장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를 권명으로도 삼고 있다.

17) 阿部秋生 外 三人 校注・訳(1998) 『源氏物語』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8

2-4 불도 수행과 구도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세상 사람들이 속세에서 타고 있는 배는 파란 만장한 인생으로 괴로운 고향의 바다 위에서 번뇌의 풍파를 헤쳐 가는 「浮舟」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유로 인간은 극락정토의 세계를 회구해 마지않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인생의 고뇌를 비유한 일본의 노래를 살펴보자

後撰 1244 難波津を今日こそみつの浦ごとにこれやこの世をうみわたる舟

와카를 지은 배경을 설명하는 詞書を 참고로 하면 「근심거리가 생겨 세쓰국에 물러가 살기 시작했을 무렵(身のうれへ侍ける時、撰津の国にまかりて住み始め侍けるに)」 부른 노래로 되어 있다. 일본어의 「うみわたる」에 「바다를 건너다(海渡る)」에 「근심 속에 세상살이를 하다(憂みわたる)」를 중첩시켜 ‘오늘 나니와쓰를 보았다. 포구마다 보이는 배 이것은 실로 바다 건너는 배가 아니라 근심 속에 세상살이를 하는 배로구나’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시는 타이완에서 활동하는 시인 지센(紀弦)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집 『檳榔樹』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 시를 떠올리게 된다. 18)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한국에는 타이완 문단에 중국어 시로 등단해 창작활동을 해온 중문학자 허세욱(許世旭)의 번역시로 소개됨)

船船在海上散步
而我航行紆波濤洶湧的陸地
我用我的煙斗冒煙
船則以其男抵音歌唱
船載着貨物拜旅客
我的順位是人生的重量
저 배 바다를 산보하고
난 여기 파도 흉용한 육지를 항행한다.
내 파이프 자욱이 연기를 뿜으면
나직한 뱃고동, 남 저음 목청.
배는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나의 적재 단위는 '인생'이란 중량.

이 시는 명상(冥想) 속에서 터득한 인생에 대한 깊은 상념을, 바다를 항해하

1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3132> 2010.2.25

는 배와 연관시켜 상징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의 제재는 파이프와 배이며, '항해와도 같은 인생이란 짐'이란 주장을 배와 나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대비시켜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 항해와 인생, 바다와 육지, 굴뚝과 파이프 등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인생의 고달픔과 힘겨움을 포착하고 있다. 결국 세상은 바다요, 인생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인지 고대 시인들은 「병풍에 스님이 배를 타고 노 젓는 모습을 보고(屏風に、法師の舟に乗りて漕ぎ出でたる所)」 다음과 같이 익살스럽게 읊고 있다.

拾遺530 わたつ海はあまの舟こそありと聞けのり違へても漕ぎ出でたるかな

바다에는 어부의 배가 있다고 들었다. 어부 아닌 스님이 배에 노 젓고 있다는 것은 불법을 어겼다는 건 아닌지

하지만 고통의 바다란 말이 있다. 거칠고 험난한 사바세계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야 성장하고 다음 갈 길이 정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옛 사람들은 순순히 받아들이며 사후의, 내세의 즐거움이 가득한 극락세계에 가보고 싶어한다.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지극히 닦아야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할 때도 일본의 시인들은 배에 자신을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新古今 1921 法の舟さしてゆく身ぞもろもろの神も仏も我をみそなへ

불법을 깨우치기 위한 배를 저어 가는 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과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절 지켜 봐주십시오.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관계있는 내용을 모아 놓은 釈教歌 중의 한 수로 당나라 유학을 앞두고 부른 노래이다. 그는 이제 배와 한 몸이 되어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긴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헤이안 후기 後白河院에 의해 당시 회자되었던 대중가요 모음집인 『梁塵秘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가 실려 있다.

梁塵秘抄 158 観音深く頼むべし 弘誓の海に 舟浮べ 沈める衆生引きのせて 菩提の岸まで 漕ぎ渡る

관음보살을 깊이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큰 바다 속에 떠 있는 배로 生死의 고향의 바다에서 빠져 허둥대는 자를 구해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다.

여기서 배는 고통스런 사바세계에서 허둥대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뜻하고 있다. 서론에서 예로 든 사바세계에서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가는 상상의 배와 유사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바다를 향해하듯이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지는 공간을 향해하여 실존을 초월하려는 욕망이 옛 사람들의 관념 속에도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끝머리에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일본고대가요에서 엿볼 수 있는 배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 배는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천신이 지상을 살피고 이승에 하강할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또한 이럴 때 사용되는 배이름에는 새의 이름이 합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새가 이승과 저승 까지를 자유로이 빠른 속도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水上に浮ぶ船> <繫がぬ舟> 등의 표현을 동반하여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상징한다.
- <浮き舟> <浮たる舟> 表現을 사용하여, 불안정과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 항해와 같은 인생이라는 의미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고 실존의 욕망을 초월해 피안의 극락정토를 항해가는 반야용선과 같은 비유로도 쓰인다.

최근 우연히 접한 문헌 속에 동남아시아의 지방에도 용마루가 휘어 오른 배의 선두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가진 고상 가옥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민속학에서는 이러한 지방형태를 주형(舟形)지방이라고 명명하는데 동남아의 도서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형지방 문화권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조상들이 뚝단배를 타고 왔고, 사자(死者)의 영혼도 배를 타고 바다의 저편에 있는 조상의 영혼이 있는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지상의 인간이 그 항해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시체 또한 땅에 매장하지 않고 프라후라고 하는 배 모양의 석관이나 옹관에 매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¹⁹⁾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며 도서지방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인류는 늘 바다 저편을 동경하고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배를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조상은 바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인간은 모두 태고적 바다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전시나 현대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은유와 상징이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향후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고대시와 현대시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가중수 외 2인(2007) 『지금도 살아 숨쉬는 습바섬의 지식묘사회』 북코리아 109p
- 신영훈(1989) 『사원 건축』 대원사 86p
- 성은구(1987) 『日本書紀』 정음사 65p, 108p
- 秦東赫(1990) 『古時調文學論』 형설출판사 91p
- 허균 (2000)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3p
- 新編国歌大観 編輯委員会(1985) 『新編国歌大観』 角川書店
- 安部秋生 外 三人校注・訳(1999) 『源氏物語』 新編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51p
- 菅野礼行 校注・訳(1999) 『和漢朗詠集』 新編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410p
- 菊地靖彦 外 2人 校注・訳(1995) 『土佐日記 蜻蛉日記』 新編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35p
- 小島憲之 外 2人 校注・訳(1996) 『万葉集』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89p
- 小島憲之・新井栄蔵 校注(1989) 『古今集』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78p
- 犬養廉校外 2人 校注(2002) 『平安私家集』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21p
- 田中裕・赤瀬信吾 校注 (1992) 『新古今和歌集』 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54 4p
- 渡辺秀夫(1995) 『詩歌の森』 大修館書店 95p

19) 가중수 외 2인 공저(2007) 『지금도 살아 숨쉬는 습바섬의 지식묘 사회』 (2007) 북코리아 109p

要 旨

韓国のお寺の本殿は亡者が地上から彼岸に往生する際の乗り物である般若竜船をかたどっ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極楽往生する際の乗り物が船であるという事実を知り、日本の古代和歌における船のイメージと相通じるような点があると考え、この点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にした。そこで、日本の一番古い歌集である万葉集をはじめ、それ以降の八代集、さらに同時代の文献を対象に船の用例を分析し、次のような結果を得た。

- ・ 船は海だけを渡る交通手段ではなく、天空をかける手段でもある。特に天神が国見をしたり、地上に降りる際は天の磐船を使う。さらに、〈天鳥船・鴨といふ舟・天鳩船〉のように鳥の名と合成された船の名前がついているが、それは鳥が冥土まで自由に速く往来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から名付けられ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
- ・ 〈水上に浮ぶ船〉〈繫がぬ舟〉などの表現を使い、何にも束縛されない自由を象徴する。
- ・ 〈浮き舟〉〈浮きたる舟〉の表現を用いて不安定な人生、はかなさを象徴する場合もある。
- ・ 航海のような人生という重荷を負った人を指す場合もあり、〈法の舟〉という表現で見られるように彼岸の極楽浄土へ向かう般若竜船を意味する場合もある。

韓国の古典詩歌や日本の現代詩に現れているイメージとも比較したいが、それについては今後またの機会を得て試みたい。

キーワード：舟、般若竜船、天神の乗り物、鳥、自由、不安定、儂さ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